

25장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연회와 심판하심

24장에서 땅과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는데 25장에서는 시온의 장로들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자세히 묘사한다. 시온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없앤 잔치이다. 그렇지만 모압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지니는데, 그러한 나라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1. ‘나의 찬송’과 강포한 자의 침묵 (25:1-5)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본 예언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5:1) 하고 찬송을 드린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일이다. 옛적에 정하신 뜻이란 다름 아닌 철저한 심판과 구원이다. 견고한 성읍을 파괴하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때에, 강한 민족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이를 것이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여호와께서는 빈궁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폭풍 중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태양에서 그들을 가리는 구름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고 악인의 노랫소리는 잠잠케 될 것이다.

2. 마지막 원수를 멸망시키신 후에 열릴 연회 (25:6-8)

시온에 임하신 여호와께서는 그 성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대관식이나 혼인식 후에 하는 것과 같은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만민을 초청하여 기쁨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대접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신 후에 베푸시는 그 잔치는 가장 풍성한 잔치가 될 것이다.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얼굴’ ‘열방 - 모든 이방’ 과 같이 ‘모두’ 가 네 번 강조된다.

승전 후에 베푸시는 그 잔치는 가장 큰 원수인 ‘사망’ 을 멸한 후에 베푸시는 잔치이다.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가리고 수의를 입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 덮개와 수의를 제거하실 것이다(25:7).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덮여 있는 그 수의를 제거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멸하신다’ 는 히브리어 단어는 ‘삼킨다’ 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사망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고, 사망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얼굴’ 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 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신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한 일이 ‘자기 백성’ 을 위한 경영과 관련이 됨을 함축적으로 가르친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시온에서 베풀어질 잔치에 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암시하는데 모압의 심판을 말하는 다음 문단에서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킨다.

3. ‘우리의 찬송’과 교만한 모압에 대한 심판 (25:9-1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초청하신 그 잔칫날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서 즐거이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찬송하였는데, 6-8절에서 만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9절) 하고 찬송할 것이다. 9절의 찬송은 죽음이 폐한 후에 드릴 온

우주의 찬송이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으나 모압은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벽을 쌓는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모압을 누르고 그 나라를 거름더미 속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들이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펴더라도, 여호와와 그의 손이 교만한 그들을 능숙하게 누르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교만한 모압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심판은 그들이 높이 쌓은 요새를 헐어 진토로 만드시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묵상과 실천:

죽음을 폐한 후에 있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

25장에서 묘사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분명히 제시된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왕의 잔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될 것이다(계 19:7-9).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죽음으로써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을 그분의 잔치로 인도하신다. 죽음 당하신 어린양이 마지막 날에 잔치의 주인과 신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선언한 후에 이어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다룬다. 어린양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계 20:6, 14; 21:8).

25장 익힘 문제

1. 심판이 끝난 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만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6-8절)
2.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열방을 멸하시지만 또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 1) 어떤 음식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1절)
 - 2) 이 잔치는 가장 큰 원수인 무엇을 멸한 뒤에 베풀어질 것입니까? (8절)
 - 3)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잔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참고 계19:9, 21:4)
3. 여호와께서 만민을 잔치에 초청하시는 날 ‘우리 하나님’ 을 찬송하며 참석하는 자들이 있지만 교만한 태도를 취하다가 심판받을 민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9-12절)